



**한국계육협회
협회장에 서성배 전 농림부 축산국장**



◀ 서성배 회장

한국계육협회장에 서성배 농림부 전 축산국장이 추대됐다. 계육협회는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외부인사가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은 계육협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신임 서 회장의 경우 농림부 관료 시절에도 축산, 특히 계육산업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깊었다는 평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한 서성배 회장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농림부 축산정책과장을 거쳐 축산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농촌공사 부사장직을 맡기

도 했다. 임기는 2년이다.

**한국동물약품협회
김진구 신임회장 추대**



◀ 김진구 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지난 2월 26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김진구 고려비엔피 대표이사를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김진구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임기간 동안 동물약품업계의 위상을 정립하고 싶다”고 전하며 “회원사의 단합으로 품질을 높이는 등 농가에 신임을 받는 품목을 생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연구소
서옥석 가금과장 취임**



◀ 서옥석 과장

축산연구소는 서옥석 농학박사를 축산지원개발부 가금과장으로 지난 4월부터 인사발령 되었다. 서옥석 과장은 그동안 기획업무를 담당하면

서 축산연구소 발전에 힘써 왔다.

김선중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 정년퇴임식 거행



서울대학교 김선중 교수의 퇴임식이 지난 23일 팔레스호텔에서 오봉국, 정영채 명예교수를 비롯하여 동문 제자 및 관련업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우희종(수의과 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정년퇴임식은 서울대 수의관련 모임인 MIA 회원 및 동문 제자들로부터 감사패 및 기념품, 꽃다발 증정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대한양계협회에서도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였다. 또한 정영채(대한수의사회) 회장과 강문일(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들려주었는가 하면 동문제자들로부터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며 퇴임식을 마쳤다. 김선중 교수는 1967년부터 농촌진흥청 가축위생연구소에서 13년간 바이러스 등 가금질병을 연구했으며, 1980년부터 26년동안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조류질병학을 담당 수많은 후학들을 배출한 바 있다.

김선중 교수는 국내 유행 뉴캐슬병 바이러스 적합성 백신은 물론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하는 등 양계 질병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국가금학회

2007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 개최

2007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이 오는 5월 17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강당에서 개최된다. 가금산업의 현안과 생산성 향상방안(가금질병과 위생관리)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다. △국내발생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이윤정 박사(수의과학검역원) △닭 전염성기관지염 한국 유행주의 분자생물학적 특성과 한국 분리주 이용 신장형 생독백신의 효능연구에 대해 송창선 교수(건국대) △한국의 뉴캐슬 질병 현황에 대해 성환우 교수(강원대) △도계육 품질저하에 의한 육계산업의 영향에 대해 신계돈 부장(울품)의 발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축산관련 업체 호응도 높아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대회장 남호경)는 5개월여 앞두고 축산 관련 업체의 참가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이미 부스 신청률 60%를 넘어섰다.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추진위원회 운영사무국에 따르면 박람회 행사에 배정된 555개의 부스 중 신청접수가 완료된 부스는 330개를 넘어섰으며, 해외 바이어 및 업체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등 이번 박람회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한다. 이번 박람회 부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이나 부스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신속히 신청을 마쳐야 할 것으로 전했다.

★신청문의

- 전화 : 02-2055-0571~2
- 팩스 : 02-2055-0573
- 이메일 : info@ekistock.com

(주)축산신문사
한미FTA 타결,
축산분야 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



‘한미FTA 타결, 축산분야 생존전략 모색 대토론회’가 축산신문사 주최로 지난 4월 16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00여명이 넘는 축산인들이 자리를 가득 매워 한미FTA가 축산업계 핫이슈임을 실감케 하는 자리였다.

양계분야 토론자로 참석한 이준동 충북도지회장은 “대책없이 개방만 앞서고 있다”고 전하며 불법종계로 생산한 삼계탕을 수출지원한다는 발상이나 이미 포화상태인 계열화 사업의 지원 확대 등과 같은 정부 대안책들에 대해 농가입장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불법종계에서 생산된 산물이 여전히 아무런 제재없이 유통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전하며 정부가 기본적인 사안부터 점검해야 함을 피력했다.

한편 본회 김영근 감사는 “현재 국내 생산물량도 넘치는 상황에서 한미 FTA로 인해 국내 양계산업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자명하다”며 “정부는 대책마련이 단편적인 보상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생존가능한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창립 제 27주년 기념행사 개최



한국농어민신문(사장 서규용)은 지난 11일 한국마사회 신관관람대 6층 컨벤션홀에서 창간 27주년을 기념하는 축하연이 400여명의 농업계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날 축하연에는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 그리고 농어민의 권익대변을 위해 노력해 온 본지의 창간 기념 축하를 위해 농업계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 아낌없는 박수와 갈채를 보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남호경 회장 만장일치 재추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차기회장에 현 남호경회장이 만장일치로 연임 추대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3월 28일 오전 7시30분부터 팔레스호텔에서 대표자회의를 겸한 조찬간



담회를 열고 차기회장 선출과 함께 2006년 사업 결산 보고 등 축산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축산관련단체장 전원이 참석해 축산현안 해결 의지에 힘을 모았으며 각종 축산현안을 위해 축산농가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남호경 회장을 차기회장으로 재추대했다.

남호경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한미FTA 등 축산업부문에 많은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지만 축산이 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번에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여러 단체장 등이 함께 힘을 모아 축산현안 해결에 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축산발전에 힘을 모아나가자고 당부했다.

'07년 축산현안 대응방안으로는 한미 FTA 저지를 적극 추진, 지방세법 개정, 수입축산물에 대한 목적세 마련,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친환경축산직불제 제도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07년 1/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07년 3월 29일 검역원 대강당에서 농림부, 시·도, 시·도 가축방

역기관, 축산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검역원 방역 관련 담당 부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07년도 1/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강문일 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 추진에 있어 시·도, 시·군 등 지자체 방역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예찰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예찰협의회에 참석한 농림부, 시·도, 시·도 가축방역기관 관계관들은 지역별 방역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중앙과 지방방역기관의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수훈제(獸魂祭)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오는 4월 5일 수의과학연구를 위해 희생되는 실험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수훈제(獸魂祭)』를 개최하였다.

수훈제란 감정과 감각이 있는 생명체(sentient being)인 돼지, 닭, 소, 개, 토끼, 마우스, 기니픽 등 약 10여종, 연평균 36천마리의 실험동물이 가축전염병예방과 백신 개발 등 수의과학연구를 위해 희생되고 있어, 실험 동물을 다루는 연구원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실험동물들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이다.

한국양계조합

최첨단 수도권 통합유통센터 준공식 개최

한국양계조합(조합장 오정길)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소재 수도권통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농림부 이상수 축산경영과장을 비롯해 농협 남성우 상무 등 서울지역 축협 조합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기존 경기도 용인과 양주에 위치해 있던 유통센터를 통합한 것으로 수도권 계란시장에서 한국양계조합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수도권통합유통센터는 1,800여평의 대지에 9백여평의 건물 내에 전자동 세척 및 선별라인을 갖추고 일일 1백만개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양계조합은 수도권유통센터를 비롯해 대구유통센터 70만개, 영주유통센터 50만개, 목포유통센터 45만개 등 총 265만개의 처리능력을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양계조합은 현재 5% 정도인 계란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올린다는 계획달성에도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광주시청에 사랑의 쌀 전달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이 따뜻한 사랑의 정 나누기 실천에 모범을 보이고 있다.

한국양계농협 조규진 상무이사는 지난 5일 광주시청을 방문하여 조합 전체의 뜻을 담은 사랑의 쌀 70포를 기증하였다.

이날 기증된 쌀은 지난 3월 29일 한국양계농



협 계란유통센터 준공식을 기념하여 축객들에게 화환대신 지역주민과 온정을 함께 나누는 선행차원에서 쌀로 기증을 받은 바 있으며, 조합에서도 뜻을 더해 총 70포를 마련하여 이번 기증식이 이루어졌다. 한편 기증된 쌀은 광주시내에 있는 미인가 시설의 불우이웃에게 전단되어 소중하게 쓰일 예정이다.

가금수급안정위원회 화이트 닭살데이 개최



가금수급안정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 동대문 두타빌딩 광장과 전국 15개 지역에서 닭고기 소비촉진 일환으로 '화이트 닭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3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소비자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는 취지로 명칭을 '화이트 데이'에서 '화이트 닭살데이'로 변경하고 닭살데이 선포식을 시작으로 닭살커플 선발대회, 닭살문자 이벤트, 닭살사진 찍기 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관련기사 122페이지 참조)